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 등 부

소 년 부

약 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12월 교육 내용	04
☺ 12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12월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English Bible Study	28
☺ 12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5
어린이 QT God's Time	36
☺ 12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7
어린이 QT God's Time	48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6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7
☺ 12월 편편 플레이	
퍼즐	58
글자 찾기	59
☺ 위드큐티스티커	60
위드포토	61
☺ 12월 추천도서.....	62
☺ 12월 교육활동지.....	63

12월 교육내용 예수님을 기다려요



암송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첫째주♥

“영락교회
신앙지도원칙”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둘째주♥

“평화로운 세계”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10)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어요.**

♥셋째주♥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넷째주♥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분이예요.**

실천 내용

1.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2.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요.
3. 워드 큐티와 말씀을 읽어요.



12월 첫째 주
2016년 12월 4일 ~ 10일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 성경 이야기 : 영락교회 신앙지도원칙 ▷로마서 1: 8~17

♥ 오늘의 포인트 :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8절)
- ②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14,15절)
- ③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6절)

★ 교육 활동 - “교회를 세워요”

준비물 - 활동지(부록), 지도(별지), 색종이, 풀, 필기도구

- 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 ② 우리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지 생각해 보세요.
- ③ 활동지(부록)을 참조하여 색종이로 교회를 접어주세요.
- ④ 지도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나라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 ⑤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이유를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 오늘의 포인트 :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영락교회 신앙지도원칙 ▷로마서 1: 8~17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전달했어요. 그 편지의 중심내용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롬 1:16).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빛진 자라고 말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Q1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Pray 복음의 빛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말라기 1:1~3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1. 다음은 주님께서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2.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3.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말씀
속으로

1.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1절)

를 시켜 에게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2절)



말씀으로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특별한 계획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에서와 야콥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불안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사랑하며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기도로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12월 한달이 되게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말라기 1:4~5 “모두에게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4.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 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 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 이라고 불릴 것이다.

5.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1. 에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4점)

·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2.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5절)

□□ □□에서도 □□ □□



남으로 하나님을 떠난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폐허가 된 성읍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에돔의 성읍을 헐어버리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될 것이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보호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해요. 우리의 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제가 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1:6~10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6.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7.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으레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0.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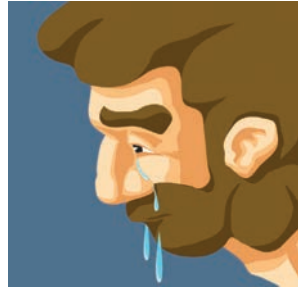
말씀
속으로

1.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요?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7~8절)

- ①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
- ② 건강한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 ③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 ④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2.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10절).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써보세요.



말씀
속으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질병을 가진 흠이 있고 짐승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레 22:17~25, 신 15:21).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흠이 있고 더러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어요. 결국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예배)을 드리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기도문

하나님! 제가 아직 어려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될게요. 평생토록 진실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4 첫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말라기 1:11~14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지는 곳까지”

11.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13.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싫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흠뻑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14. 자기 짐승 때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높임을 받으실까요?(11절)
그리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 곳부터 가 곳까지 = 민족들

2.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나요?(14절)



삶속으로

하나님께서서는 악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안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방해되는
핸드폰이나 게임기 등은 내려놓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해야 해요.
우리 모두 우리의 큰 임금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요.

기도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태복음 1장 23절 -



유크드



12월 둘째주
2016년 12월 11일~17일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 10

♥ 성경 이야기 : 평화로운 세계 ▷이사야 11:1-9

♥ 오늘의 포인트 :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어떤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질까요?

말씀을 보고 무엇 무엇이 함께 하는지 짝지어 보세요. (6-8절)

이리	·	·	곰이 함께 먹으며
송아지	·	·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	·	·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먹는 아이	·	·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	·	·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 떤 어린 아이	·	·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	·	·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 교육 활동 - “이새의 뿌리”

준비물 - 활동지(부록), 필기도구, 성경책

① 마태복음 1장 6~16절을 펼쳐주세요.

② 말씀을 보며 이새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시켜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10

♥ 오늘의 포인트 :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평화로운 세계 ▷이사야 11:1~9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를 가지고 올 한 지도자를 예언했어요. 그 지도자는 이새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또한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가득하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이 땅에 한 지도자가 났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고, 정의로움으로 다스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세계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기도해요.



Q1.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평화로운 나라는 어떤 곳일지 상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보세요.

Pray 이 땅이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만
남
의
사랑

말라기 2:1~5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

1.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2.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4.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 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5.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 하였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훈계하신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2절)

- ① 하나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아서
- ②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 ③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2.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 약속된 언약인가요?
빈칸을 채워보세요.(5절)

人 □ 과 표 형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로 세우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약속해주셨어요. 하지만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훈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혹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로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만
삼
보
문

말라기 2:6-9 “말씀을 지켜요”

6.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8.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 특사: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

말씀
속으로

1.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빈 칸을 채워보세요.(6~7절)

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늘 하였다.

- 많은 사람들을 , 악한 길에서 하였다.

- 그들의 입술은 을 지키고, 사람들이 을 구하게 된다.

2. 제사장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7절)

ㅈ ㅅ



심
속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기
도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만
남
의
친
구

말라기 2:10-12 “구별된 삶을 살아요”

10.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11.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12.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말씀
속으로

1. 다음을 읽고, 알맞은 것에는 O, 맞지 않은 것에는 X 표시하세요.(10~12절)

-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 예루살렘에는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 유다 백성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였다.()
- 남자들은 이방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였다.()
-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



심숙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등 추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야곱의 가문, 즉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욕구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1:16)’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저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생기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인생
의
가장
중요한
가치

말라기 2:13~16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13. 너희가 잘못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제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14.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15.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16.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말씀
속으로

1.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울고 탄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13절)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나요?(15, 16절)

를 하지 말아라



심
속으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가운데 결혼했지만, 증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제단에서 울고 탄식하며 불평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세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 - 가정과 학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기
도로

하나님! 제가 속한 곳 - 가정과 학교, 학원, 교회 등 어디에서나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속한 곳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NGLISH BIBLE STUDY



누가복음 2:8-15 Joy—finding a way to be happy even when things don't go your way.

8.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8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It was night, and they were taking care of their sheep. 9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They were terrified. 10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It will bring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11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12 Here is how you will know I am telling you the truth.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trips of cloth and lying in a manger.” 13 Suddenly a large group of angels from heaven also appeared. They were praising God. They said,

14 “May glory be given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may peace be given to those he is pleased with on earth!”

15 The angels left and went into heaven. Th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s go to Bethlehem. Let’s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Luke 2:8-15(NIRV)-

Vocabulary

shepherd 목자	sheep 양	appear 나타나다
(were) terrified 겁이 났다. 두려워 했다. 놀랐다. (수동태 be 동사)		
joy 기쁨	Savior 구세주	manger 구유
suddenly 갑자기	sewed 바느질하다, (바느질로) 만들다	
clothes 옷		

Observation

What kind of news are the angels bringing to the sheperds?

It was n_____, and the s_____ were taking care of their sheep.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_____. I bring you g_____ news. It will bring great j_____ for all the people.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올 좋은 소식이다.”

T_____ in the town of David a S_____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_____.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구세주가 너희들에게 태어나셨다. 그분은 메시아, 주님이시다.



Interpretation

양을 치던 목자들은 밤에 추위를 이기느라 몇 명은 양 떼 사이에서 자고, 몇 명은 늑대 같이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자는 숨소리와 야생의 소리만 남은 그런 밤 중에 돌연히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나타나 영광이 그들을 비쳤을 때 그들은 두려워(afraid)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곧 천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 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이 천사는 그 때 당시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기다려 왔던 메시아가(Messiah) 구세주가(Savior)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good news)입니다. 그리고 소식은 바로 기쁨(joy)을 가져다 줍니다. 이 좋은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저 좋아서 그 자리에서 날뛰며 좋다고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확인하러 예수님을 찾아보러 갔습니다.

Application

Most of us like think that joy comes when things go exactly the way we want. However, the true joy does not come like that. We might try to find joy through our stuff, or our vacations, or our relationships, joy is not dependant upon any of those things. Joy is about being content beyond our circumstances. We can have joy when we recognize that God's plan is greater than our own. Joy is a response to our trust in God.

God sent His only son as a baby, born in humble circumstances. Jesus was not what anyone expected, but this was how God wanted to rescue the world. God made good on the promise He made hundreds of years before. We can have joy because God's story is for everyone. Jesus' story brings joy to everyone who gets it. Good things, good news are not to be kept secret, but they are to be shared. Share the good news, no the greatest news of all the earth.

우리가 원하는대로 다 될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물건들이나 방학,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찾아 보려고 할 수 있지만, 기쁨은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넘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초라한 상황 가운데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 하던 방법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구원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좋은 일, 좋은 소식은 비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나눕시다. 아니 이 땅위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합시다.

Let's memorize

Let's memorize Philippians 4:4 (NIRV) 빌립보서 4장 4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Always be joyful because you belong to the Lord.

I will say it again. Be joyful!” -Philippians 4:4 NIRV-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태복음 1장 23절 -



유크드



12월 셋째주
2016년 12월 18일~24일



memory time



예수

세상에서 가장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 성경 이야기 : 예수 ▷마태복음 1:18~21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❶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8절)
- ❷ 마리아의 임신소식을 들은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나요? (19절)
- ❸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21절)

★ 교육활동 - “익투스 만들기”

익투스(ΙΧΘΥΣ)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 Ιησού Χριστο Θεού Υιού Σωτηρ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 준비물 - 활동지(부록), 필기도구, 가위, 풀

- ❶ 활동지(부록)에 있는 ‘익투스’의 회색선을 따라 색칠하세요.
- ❷ 이때 글자의 뜻을 말하며 색칠해보세요. 예) ‘I’를 색칠하며 ‘예수님’을 말합니다.
- ❸ 검정색 점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보세요.
- ❹ 완성이 되면 다함께 뜻을 말해보세요. 이후 성경책 또는 위드책 뒷 부분에 붙여보세요.
- ❺ 방주의 문에 다리를 연결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 ▷마태복음 1:18~21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할 날을 준비하며 사랑의 마음과 순결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말하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약혼자 요셉은 파혼하려 했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마리아를 위하여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요.

Q1. 내가 마리아 또는 요셉이었다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Pray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말라기 2:17~3:2 “하나님의 특사”

17."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 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1."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2.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젓물과 같을 것이다.

* 표백: 종이나 천 따위를 바래거나 화학 약품으로 탈색하여 희게 함.

* 젓물: 짚이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 예전에 주로 빨래할 때 사용함.

말씀
속으로

1.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나요?(1절)

2. 하나님의 특사는 무엇과 같나요?(2절)

이것은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과 을 하는 불, 하는 잿물

말씀
속으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좋게 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사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불과 잿물과 같아서 그분이 임하시는 날에는 모두에게 심판이 행해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특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악행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줄 것이예요. 하나님의 특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몸 바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를 사랑 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특사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제가 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말라기 3:3~5 “하나님을 기쁘시게”

3.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 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4.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5.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 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 정련: 충분히 단련함.

* 정련공 : 충분히 단련된 사람. 기술자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의 특사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면, 레위 자손은 어떻게 행동 하나요?(3,4절)

① 하나님에게 _____을 드리게 될 것이다.(3절)

② 하나님을 _____할 것이다.(4절)

2.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나요?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적어보세요.(5절)

<보기>

- ㉠ 점치는 자 ㉡ 간음하는 자 ㉢ 금속 정련공 ㉣ 거짓증언하는 자
㉤ 품삯떼어먹는 자 ㉥ 레위 자손 ㉦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 이방 사람 ㉩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특사는 은을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지난날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예요.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옛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특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요. 우리 크게 외쳐보아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늘 제 마음 속에 계시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말라기 3:6~9 “하나님의 것”

- 6."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7.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8.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
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
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9.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 헌물 : 바치는 물건

말씀
속으로

1.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흠뻑하였나요?(8절)

와

2. 십일조와 헌물은 누구의 것일까요?(8절)

것



말씀속으로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 즉 십일조를 바치라 말씀하시며,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민 18:21~24).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라기시대 사람들은 십일조 규례를 도무지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십일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물조차도 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흠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지난 11월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 재능 등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해요. 혹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흠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모두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해요.

기도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되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것을 흠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라기 3:10-12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요”

10.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11.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 온전 :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음

* 소산물 : 생산되는 모든 물건

말씀
속으로

1.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10~12절) 알맞은 것에 O, 틀린 것에 X 표시하세요.
 -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지 못한다.()
 - 포도밭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다.()
 - 땅이 비옥하여 진다.()
 -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게 된다.()

2.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열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10절)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는다면,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땅이 비옥해지며, 토지의 소산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십일조를 원하셔요. ‘아까운데 드려야 할까?’ 혹은 ‘십일조 드리면 복 주시겠지?’ 라는 그릇된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예요. 오늘은 주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길 원해요. 제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나 복을 받으려는 그릇된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태복음 1장 23절 —





12월 넷째 주
2016년 12월 25일~ 2월 31일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 성경이야기 : 임마누엘 ▷마태복음 1:22~25

♥ 오늘의 포인트 :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분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23절)

②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23절)

★ 교육활동 - “수료식 및 진급”

“수료식 및 진급”이 진행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 오늘의 포인트 :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분이예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임마누엘 ▷마태복음 1:22~25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Q1. 삶속에서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느 때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Pray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라기 3:13~15 “거역하지 않아요”

13.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14.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15.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 불손 : 겸손하지 못함.

* 거역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어겨 거스름.

말씀
속으로

1. 불손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일까요?(13절)

ㄱ ㅅ 하는 태도

2. 14~15절 말씀을 읽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써보세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며,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재앙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공의가 없다는 것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불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악을 미워하시며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요.

기도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길 원해요. 제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2

넷째 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씀
본문

말라기 3:16~18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16. 그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17.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18. 그 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비망록: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 둔 것.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기록하시나요?(16절)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16~18절)

- 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 ② 사람이 동물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아껴주신다.
- ③ 의인과 소인을 분별할 수 있다.
- ④ 교회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다.



말씀
속으로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비망록(기념책)에 기록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자녀처럼 아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해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요.

기도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길 원해요.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지 않길 원해요.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길 원해요. 사랑해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라기 4:1~3 “그 날이 오면”

1.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 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 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3.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씀
속으로

1. 용광로의 불길같은 날이 오면,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보세요.(1~2절)

교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난다.
- 지푸라기같이 타버린다.
- 뿌리와 가지가 남김없이 태워진다.
-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



삶속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용광로의 거센 불길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교만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불길에 태워지는 멸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해는 상처를 치료하는 빛으로, 고통과 상처 등을 치료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며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용광로의 불길 같은 날이 온다할지라도, 어떠한 큰 고난이 찾아온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치료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요.

기도로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하길 원해요. 저의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S TIME 4

넷째 주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말라기 4:4-6 “너희는 기억하라”

4.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 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5.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나요?(4절)

= 와

2. 하나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6절)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가 _____의 _____을 _____에게로
돌이키고, _____의 _____을 _____에게로
돌이키도록”



말씀속으로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세레 요한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마 11:10~14). 세레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외쳐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남은 2016년, 다가오는 2017년도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나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기도로

하나님! 2016년 한해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해요. 2017년에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2017년에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제가 될게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 시를 읽어주세요.
3. 시를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대림절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다시 대림절에 / Sr.이해인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간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목관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관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나

검허한 갈망의 기다림끝에
꼭 당신을 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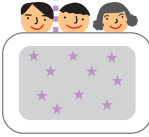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 오릅니다

-사랑할 땐 별이 되고 중에서-

OO야, 잘 잤니?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란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를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란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릴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가자.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와 한 해를 돌아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한 해를 돌아보며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아요.

“OO야,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해볼까?”

- 있었던 일들 중 감사한 일들을 서로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아요.

- 서로 미안했던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하는 시간을 가져요.

“OO야,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보내게 될까?”

- 내년에 소망하는 것을 한 가지씩 나눠보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기뻐했던 한 해였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지난 잘못들도 용서하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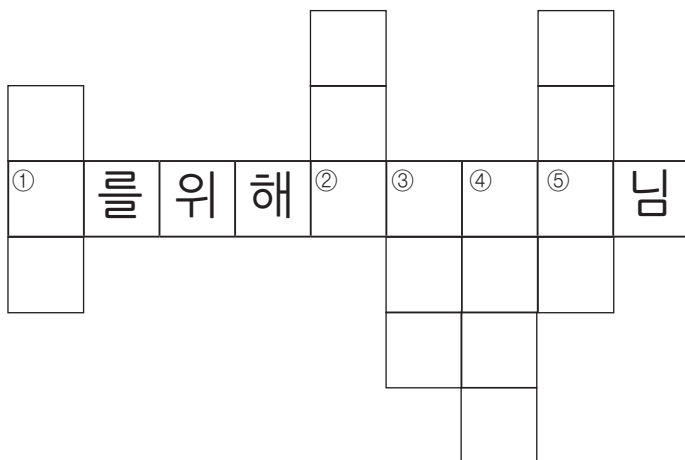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가득 품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이 달의 퍼즐

가로세로 퍼즐



- ① 다윗을 사랑하여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지켜주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삼상 18:3)
- ②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질 때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단 6:1)
- ③ 성경에서 5번째 순서에 있는 성경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000)
- ④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힌트 : 막 11:11)
- 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0000 였다. (수 1:1)

글 자 찾 기

글자를 찾아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색칠해보세요.
나타나는 글자를 읽어보세요.

죄	오락	미움	다툼	시기	싸움	타락	죄	욕	짜증	욕심
거짓	미움	욕	싸움	짜증	시기	욕심	시기	죄	오락	싸움
싸움	말씀	타락	죄	예배	미움	말씀	찬양	싸움	찬양	미움
욕심	위드	욕심	시기	찬양	오락	위드	오락	시기	예배	거짓
성경	미움	기도	위드	말씀	죄	기도	예배	미움	큐티	말씀
큐티	욕	성경	시기	기도	타락	감사	짜증	오락	기도	욕
미움	다툼	시기	싸움	감사	욕	찬양	큐티	욕	성경	욕심
욕	말씀	위드	찬양	욕심	짜증	죄	오락	미움	다툼	시기
예배	거짓	욕심	시기	성경	욕심	찬양	타락	죄	욕	짜증
미움	찬양	큐티	말씀	죄	다툼	큐티	기도	위드	말씀	욕
타락	죄	죄	오락	미움	다툼	시기	거짓	싸움	미움	타락
욕심	시기	타락	욕	욕심	거짓	욕심	시기	죄	욕	싸움
다툼	욕심	시기	죄	오락	싸움	미움	다툼	시기	타락	욕심

Q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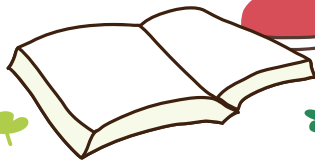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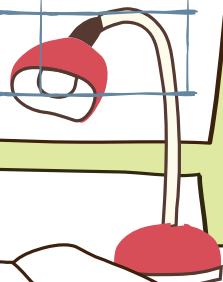
부 학년 반 / 이름 :

ST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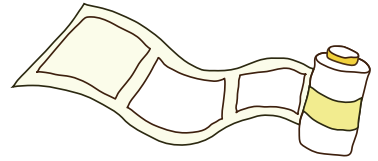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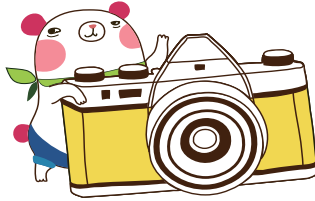


Bible study!

GOD'S TIME	1	2	3	4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위드 PHOTO



초등부

친구들~
위드포토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소년부

친구들~
위드포토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위드포토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소년부

친구들~
위드포토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2월

제 목 : 폭력과 전쟁은 왜 일어나나요?

글 : 알베르트 비징어, 헬가 코울러-슈피겔

옮김 : 전재민

출판 : 어린이나무생각



근본적으로 인간은 폭력을 통해 자기 생각을 남에게 억지로 주입하거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전쟁을 겪어 본 사람은 더욱 평화를 원하죠. 사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리가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해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것이든 서로 공평하게 나누려고 노력한다면 굳이 적이 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믿든 다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자 한다면 오직 평화속에서, 대화를 통해, 감정보다는 이성적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서로 도울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 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싸웠던 과거에 대해 서로 용서를 구할 때 평화의 길이 보다 쉽게 열릴 거예요. -책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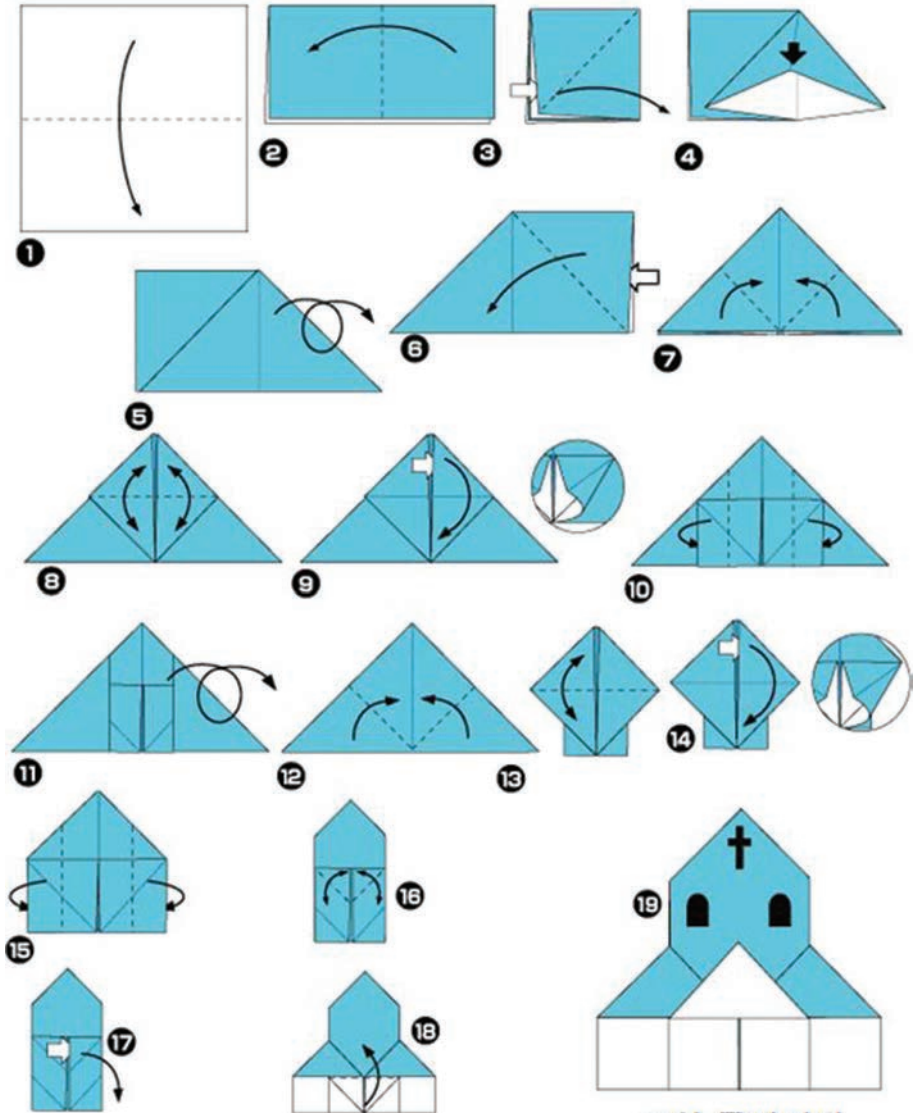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책을 읽어보아요.



교육활동지

첫째주(12/4)

교회를 세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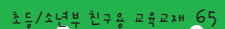


교회 종이접기



이새의 뿌리

= 이사야 11:10 =





교육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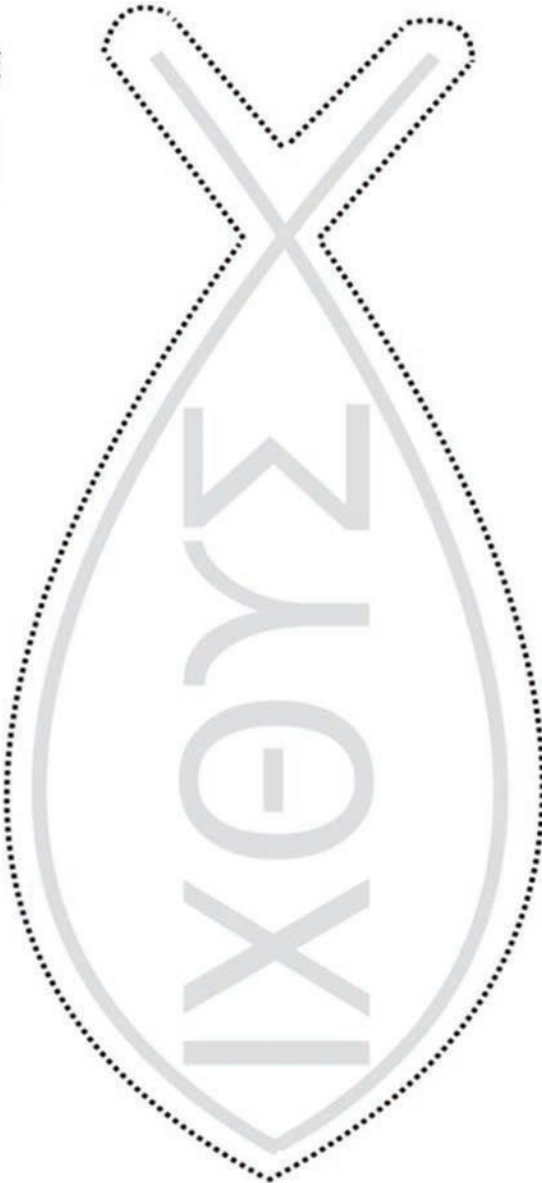
셋째주(12/18)

익투스 만들기

색칠



가위



$\text{Ἰησοῦς} = \text{예수}$ $X_{\mu\tau\omicron\varsigma} = \text{그리스도}$ $\Theta_{\epsilon\iota\varsigma} = \text{하나님}$
 $\Upsilon_{\iota\omicron\varsigma} = \text{아들}$ $\Sigma_{\omega\tau\epsilon\rho} = \text{구원자}$

